



부록 | 모의고사 지문 분석

2024학년도 시준5 제4차 이감 국어 모의고사 지문 분석을 수록하였습니다.

독서 _____ 92쪽

문학 _____ 98쪽

[4~9] 인문 통합

제자백가 사상가들의 인간관과 통치 이념

지문 평가

평이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 크게 어렵지 않은 글이다. (가)에서 맹자와 순자의 관점을 비교하여 이해하고, (나)에서는 한비자의 관점이 앞서 (가)에 제시된 맹자나 순자의 관점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파악할 수 있으면 된다.

키워드

(가) 인문 - 동양 철학 - 맹자, 순자

제자백가, 맹자, 사단, 천도, 도덕적 실천, 수양, 덕치, 순자, 예, 예치

(나) 인문 - 동양 철학 - 한비자

한비자, 법치, 법, 리, 노자, 도가 사상, 허정

(가) 문단 1 제자백가의 등장 배경

춘추 전국 시대에는 군사력을 키워 천하를 제패하려는 국가들 간의 싸움이 끊이지 않았고, 그 결과 혼란 속에 사회의 기강마저 허물어졌다. 이에 위기 극복의 해법을 찾으려는 여러 학파들인 **제자백가**가 등장하였다. 이들은 인간 본성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사회 변화를 추동할 방법에 대해 고심하였다.

▶ 춘추 전국 시대의 오랜 전란과 혼란 속에서 자연히 사회의 기강은 흐트러졌다. 제자백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여 찾고자 하였다.

◀ 맥락 짚기 글의 초점이 주어졌다. 사회의 혼란이라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자 제자백가의 학자들이 인간 본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또 사회 변화를 위해 주장한 내용이 무엇일지를 초점으로 삼아 글이 전개될 것이다. 각 사상의 관점 차이를 명확히 파악하며 글의 흐름을 따라가자.

(가) 문단 2 맹자의 인간관과 덕치

1) **맹자**는 인간이 도덕의 단초인 **사단(四端)**을 타고난다는 점에서, 선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원동력이 인간 내면에 있다고 보았다.

▶ 제자백가 가운데 맹자는 인간은 애초에 선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보았다. 그 근거로 인간이 사단, 즉 도덕의 단초를 타고났다는 점을 들었다.

2) 그에 따르면 하늘의 이치인 **천도(天道)**는 인간에 부여된 본성에 자리하여 자발적으로 **도덕적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 맹자는 인간의 본성에 하늘의 이치, 즉 천도가 깃들여 있어서 인간이 도덕을 실천하게 된다고 하였다.

인간=사단 내재
인간의 본성 ≧ 천도 ⇒ 도덕적 실천

3) 다만 맹자에 따르면 도덕의 실현은 가능성으로 주어진 것일 뿐 저절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개인은 외적 사물에 현혹되지 않도록 **수양**을 해야 한다.

▶ 다만 맹자는 천도를 본성으로 지녔다고 해도 그것이 저절로 도덕적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천도를 지닌 개인이 도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

임없이 수양할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외적 사물에 현혹되는 것은 도덕의 실현을 방해하므로 경계해야 한다고 보았다.

4) 특히 군주는 자기 수양을 넘어 백성에게 은덕을 베푸는 **덕치**를 펼쳐야만 한다.

▶ 그 가운데 군주는 자기 수양을 통해 덕을 함양하고, 이를 백성에게 베푸는 덕치로써 나라를 통치해야 한다.

5) 덕치는 군주가 현자를 택해 자리를 물려주는 **선양**에 의해 후대에 계승되기도 했는데, 요임금에서 순임금으로 이어졌던 선양의 전통이 이후에 깨지면서 혼란이 초래되었으므로 덕치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 맹자의 생각이었다.

▶ 맹자는 선양을 통해서 덕치가 후대에 계승되는데, 그 전통이 깨지면서 덕치가 끊기고 혼란이 나타나게 되었으니, 그 혼란은 덕치를 회복함으로써 잠재울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가) 문단 3 순자의 인간관과 예치

1) 천도가 있다면 참혹한 현실이 이렇게 지속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 **순자**는 하늘을 자연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인간 사회의 길흉은 하늘의 뜻이 아니라 **인간 행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맥락 짚기 순자의 관점이 앞서 제시된 맹자의 관점과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늘의 이치인 천도가 인간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다고 본 맹자와 달리, 순자는 천도의 존재를 부정하며 하늘은 그저 자연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렇다면 인간의 본성에 대한 순자와 맹자의 관점 역시 확연히 다를 것이다.

▶ 순자는 인간 사회의 길흉은 인간 행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즉 사회 혼란의 원인을 인간 행위에서 찾은 것이다.

2) 그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에는 **좋은 것을 취하고 싫은 것을 멀리하려는 욕구**가 내재되어 있는데, 외부 사물에 감응할 때 발현되는 이 욕구를 조절하지 못하면 이익을 둘러싼 다툼이 빈번해진다. 이처럼 인간의 본성에 악으로 흐를 수 있는 성향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

▶ 순자는 인간의 본성에 내재된 욕구는 외부 사물과 감응할 때 발현되며, 악으로 흐를[→ 사회적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보았다.

※ 주목 본성에 내재된 욕구를 조절하지 못할 경우 악으로 흐를 수 있다는 순자의 관점은, 인간은 사단을 지녀 선한 인간이 될 수 있는 원동력이 있다고 본 맹자[문단2-1])의 관점과는 대조적이다.

맹자	순자
인간은 사단을 타고남 ⇒ 선한 인간으로 성장 가능	욕구가 인간의 본성에 내재됨 ⇒ 악으로 흐를 수 있음

3) …… 순자는 성인이나 군주가 정리한 인위적 도덕 원칙인 **예(禮)**를 따름으로써 욕구를 제어해야만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았다.

▶ 순자는 인간 본성에 내재된 욕구가 사회적 혼란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예'를 통해 욕구를 통제해야 한다고 보았다.

4) 또한 선왕의 통치를 본받아야 한다고 본 맹자와 달리,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도덕적 실천을 중시한 순자는 후대의 군주가 변화된 시대상에 부합하는 **예**를 세워야 그에 따른 통치인 **예치**가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맹자는 군주의 덕치가 선왕의 전통을 통해 계승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문단2-5], 선왕의 통치를 본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순자는 변화된 시대상에 부합하는 예를 바탕으로 예치를 펼칠 것을 주장하였다.

※ 주목 맹자와 순자 모두 군주의 도덕적 실천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다만 맹자는 군주가 자기 수양을 통해 함양한 덕을 베풀고 이를 후대에서 계승할 것을 강조한 데 비해, 순자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예를 세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도덕적 실천을 중시했다.

덕치	예치
군주가 수양을 통해 함양한 덕을 백성에게 베풀	인위적 도덕 원칙인 예를 바탕으로 통치
선양을 통해 계승	변화된 시대상 반영

(나) 문단 1 한비자의 법치의 등장 배경

1) 춘추 전국 시대에 **한비자**는 그가 저술한 『한비자』를 통해, 물자가 넉넉했던 요순시절에 비해 분쟁이 잦다는 이유로 **강력한 법에 의한 통치인 법치**를 피력하였다.

☞ 맥락 짚기 통합 지문을 읽을 때에는 (나)를 읽으면서 (가)의 내용을 의식적으로 끌어올 수 있어야 한다. (가)에서는 맹자의 덕치와 순자의 예치를 설명한 반면, (나)에서는 한비자의 법치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상가들의 인간관과 통치 이념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의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한비자는 사회적 혼란의 원인을 요순시절에 비해 부족해진 물자에서 찾았다. 그러면서 물자 부족으로 이익을 둘러싼 분쟁이 잦아졌기 때문에 이를 강력한 법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관점을 드러냈다.

2) 순자의 문하에서 공부하기도 했던 한비자는 **순자의 인간관**을 발전시키는 한편, **노자의 도가 사상**까지 차용하여 법치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 한비자의 법치는 순자의 인간관과 노자의 도가 사상을 반영하여 정립되었다.

(나) 문단 2 한비자의 인간관과 법치

1) 한비자에 따르면 육체적으로 열악한 조건을 타고난 인간은 **생존을 위해 이익을 쫓는 욕구**를 지니므로, 물자가 부족하여 욕구가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통치 방식 역시 그에 맞게 변해야 한다.

➡ 한비자는 순자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욕구를 지닌 존재라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인간이 육체적으로 열악한 조건을 타고났기 때문이다.

➡ 따라서 물자가 부족해져 발생하는 분쟁처럼 개인 간의 욕구가 충돌하는 사회적 혼란기에는 분쟁이 없었던 때와 달리 강력한 법을 통해 백성들의 욕구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 덕치와 같은 주관적 마음에 따른 통치로는 분명한 행동 지침을 제 공하지 못한다고 본 한비자는 사안별로 구체적인 상벌을 **정해 놓은 표준인 법**을 제정하여 통치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 한비자는 사안에 따라 명확한 상벌을 정해 두는 법과 이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 통치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 한비자는 덕치를 군주의 본성과 수양으로 쌓은 덕에 의존한다고 보아 주관적 마음에 따른 통치라고 하였다. 따라서 명확한 행동 지침이 필요한 사회적 혼란기에는 덕치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가)에서 맹자가 군주의 덕을 베푸는 덕치를 주장한 것과 상충된다.

3) 이때 입법자에게 필요한 것은 보편 법칙인 ‘도(道)’가 아니라 각 사물의 이치인 **‘리(理)’**에 대한 이해이다. 사물이 변하면 ‘리’도 달라지므로 법은 그 시대의 사물을 반영해야 한다는 뜻이다.

➡ 한비자는 인간의 본성에는 이익을 쫓는 욕구가 있으며, 분쟁은 물자 부족으로 인간의 욕구가 충돌하여 발생한다고 하였다. 즉 사물과 관련하여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법을 제정할 때는 사물의 이치인 ‘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시대의 사물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4) 그의 법치는 순자의 예치와도 구분되는 것이었다. 순자는 백성을 규율하는 법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법이 독자적인 지위를 갖는다고 보지는 않았다. 법은 예를 근거로 만들어지며 법의 해석 근거가 곧 예이므로, 예가 바로 서지 않으면 아무리 엄격한 법도 사회 질서를 확립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 맥락 짚기 한비자의 법치가 순자의 예치와 비교되고 있다. 순자와 한비자 모두 인간의 본성에 사물과 관련한 욕구가 내재하여 이를 통제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순자가 백성을 규율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법이 예를 근거로 만들어졌음을 전제한 것이다. 순자는 시대에 부합하는 예를 세워 이를 근거로 통치하는 예치를 주장했으므로, 어디까지나 예를 중심으로 법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5) 이와 달리 한비자는 인간이 도덕보다는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성품을 교화하기보다는 법을 통해 행위의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 순자와 달리 한비자는 법에 강조점을 두어, 법을 바탕으로 인간 행위를 통제하여 사회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주목 여기까지 (가)의 맹자와 순자, 그리고 (나)의 한비자의 인간관과 통치 이념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맹자	순자	한비자
인간관	인간=도덕 내재 ⇨ 수양 및 실천	인간=욕구 내재 ⇨ 통제[→ 예]	인간=욕구 내재 ⇨ 통제[→ 법]
통치 이념	덕치 ⇨ 선양을 통한 계승	예치 ⇨ 시대 변화에 부응	법치 ⇨ 사물 변화에 부응

(나) 문단 3 한비자의 도가 사상 차용

1) 규범이나 제도 등 인위적인 것에서 벗어나 무위를 추구한 **노자의 도가 사상**은 법치와 상충하는 편이지만, 한비자는 **통치자의 처신**을 언급하는 국면에서 도가 사상을 많이 차용하였다.

➡ 노자의 도가 사상은 인위적인 것을 거부하는 사상이므로 법치와는 상충되지만, 한비자는 이를 차용하여 법치의 기틀을 마련했다.

2) 노자의 저서를 해석한 『한비자』의 「해로편」에는 대립되는 사물이 함께 번성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대목이 등장한다. 한비자는 이에 근거하여 **상벌을 내리는 권세가 군주에게만 주어져야** 통치권이 유지된다고 보았다. 왕족 출신으로서 궁궐의 암투를 경험했던 한비자는 군주의 권세가 신화와 공유됨으로써 위계질서가 흔들리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 대립되는 사물이 함께 번성할 수 없다는 도가 사상의 대목을, 한비자는 권세가 분산되면 통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관점으로 접근하였다.

➡ 그럼으로써 한비자는 분산된 권세를 경계하고, 통치자에게만 상벌을 내리는 권세를 주어 확고한 통치권을 유지할 것을 강조하였다. 통치자의 강한 권력으로부터 강력한 법치가 비롯된다고 본 것이다.

3) 또한 한비자는 통치자가 갖춰야 할 태도로서 노자가 제시한 **‘허정(虛靜)’**을 강조하였다. 허정은 마음을 비워 고요해지는 것으로, 한비자는 이를 차용하여 통치자가 본심을 드러내지 않고도 신화와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순응하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인 통치라고 주장하였다.

➡ 노자의 ‘허정’ 역시 법치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 통치자의 강한 권세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제시한 것이다.

(나) 문단 4 한비자의 법치에 대한 평가

한비자의 법치는 진나라의 통치 철학으로 받아들여져 통일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그의 사상은 절대 군주의 권모술수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활용된다는 비판에 직면하곤 한다.

▶ 한비자의 법치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통치자의 권세와 그에 따른 법만을 강조함으로써 절대 군주의 권모술수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보기> 분석

<보기> 문단

1) 요즈음 시대에 요순을 찬미하는 자가 있다면 웃음을 살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성인은 옛것을 반드시 따르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지키려 하지 않으며 시대의 사정에 따라 알맞은 대책을 세운다. 선왕의 정치를 가지고 요즈음의 민을 다스리려 하는 것은 모두 나무 밑동을 지키는 것과 같은 부류이다.

◀ 맥락 짚기 발문에서 <보기>는 (나)의 『한비자』의 일부라고 했으므로 (나)에 제시된 한비자의 인간관과 법치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더 나아가 (가)의 맹자나 순자의 관점과의 비교점을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 <보기>는 선왕의 정치를 그대로 본받아 요즈음의 백성을 다스려선 안 되며, 시대의 사정에 따라 통치를 달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시대에 따른 사물의 변화를 반영하여 법을 수립해야 한다는 한비자의 주장((나)의 문단2-3))과 같은 선상이다.

∴ 순자 역시 변화하는 시대상에 부합하는 예를 바탕으로 예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가)의 문단3-4)). 따라서 순자는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오히려 덕치를 중시한 맹자가 선왕의 통치가 선양을 통해 계승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가)의 문단2-5)), 시대의 사정에 따라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㉔번 선택지는 적절하지 않다.

2) ... 남의 신하가 된 것은 군주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익을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신하는 처벌을 두려워하고 상 받는 것을 이득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군주만이 상벌을 내리는 권한을 가져야 하며, 직접 형까지 집행한다면 신하들은 그 이득 쪽으로 향해갈 것이다.

▶ 신하는 이익을 중시하고 처벌을 두려워하므로, 군주만이 상벌의 권한을 가지고 집행한다면 신하들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 주목 신하를 실익을 따지는 존재로 본 것은 인간에게는 이익을 따르는 욕구가 있다는 한비자의 인간관에서 비롯된 것이다((나)의 문단2-1)). 또한 군주의 상벌 권한에 대한 관점은 한비자가 대립되는 사물이 함께 번성할 수 없다는 도가 사상에서 착안하여, 통치자에게만 상벌의 권세가 주어져야 통치권이 유지된다고 주장한 것과 연결된다((나)의 문단3-2)).

3) ... 대저 군주가 정해진 법을 버려두고 사적인 의견을 따르면 신하들이 능력을 꾸며 보이고, 그로 인해 법령은 서지 못하게 된다.

▶ 군주는 사적인 의견에 따라 통치해서는 안 되며, 객관적인 법을 제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통치해야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이는 한비자가 주관적 마음에 따른 통치로는 분명한 행동 지침을 제공하지 못한다며 법을 통해 통치의 객관성을 확보하려 했던 것과 연결된다((나)의 문단2-2)).

[10~13] 사회

처분의 취소

지문 평가

하자 있는 처분의 취소와 관련하여 '위법한 처분'과 '부당한 처분'을, '쟁송 취소'와 '직권 취소'를,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을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법학 지문인 만큼, 원칙과 예외를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키워드

사회 - 법학 - 처분의 취소

처분, 하자 있는 처분, 위법, 부당, 처분의 취소, 존속력, 불가쟁력, 행정 심판, 행정 소송, 쟁송 취소, 직권 취소, 불가변력, 사법 절차에 준하는 처분, 재결, 확인 행위

문단 1 하자 있는 처분과 처분의 취소

1) 경찰청과 같은 행정청이 어떤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행정청이 행하는 법 집행을 **처분**이라 한다. 그런데 때로는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하자 있는 처분」**일 수 있다. **위법**은 법률에 어긋나는 것을, **부당**은 공익이나 합목적성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 '처분'에 대한 설명과 예시가 주어졌다. 경찰청이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도 '처분'이다. 그런데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한 그 운전자가 사실은 교통 규칙을 위반하지 않았거나, 그 위반이 공익이나 법률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볼 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범칙금을 부과한 처분이 오히려 하자가 있다고 본다.

▶ '하자 있는 처분'은 '위법'→'위법한 처분'과 '부당'→'부당한 처분'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인데, '위법'은 말 그대로 처분 자체가 법률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부당'은 그 자체로 법률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위법한 처분	부당한 처분
법률에 어긋나는 처분	공익이나 합목적성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처분

2) 하자 있는 처분은 행정청이나 사법부에 의해 그 효력이 정지될 수 있는데, 이를 **「처분의 취소」**라 한다. 처분의 취소는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처분에 근거한 다른 법률관계들까지 훼손하여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특정한 경우에는 취소될 수 없는 힘인 **존속력**이 처분에 부여되기도 한다.

▶ 하자 있는 처분으로 판단되면 그 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 그런데 처분이 '취소될 수 없는' 특정한 경우도 있다. 이때 처분을 취소하는 목적이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면, 처분에 '존속력'을 부여해서 처분이 취소될 수 없게 하는 목적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 맥락 짚기 글의 초점이 주어지는 대목이다. 구체적으로 '존속력'이 무엇을 뜻하는지, 존속력이 부여되어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특정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독해의 초점이 되겠다.

문단 2 불가쟁력과 쟁송 취소

- 1) 처분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이나 처분의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은 처분에 불복하여 그 효력을 다룰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법률에서 정한 불복 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효력을 다룰 수 없게 하는 존속력인 **불가쟁력**이 처분에 부여된다. 처분의 효력을 다투고자 하는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은 결국 불복 기간 내에 관련 심사를 하는 행정청인 재결청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해야만 하는 것이다.

▶ '존속력'과 관련하여 '불가쟁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처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은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들은 '행정 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불복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반드시 '불복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불복 기간이 경과하면 처분에 '불가쟁력'이라는 존속력이 부여되어 처분이 취소될 수 없기 때문이다.

※ 주목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의 심사 주체가 다르다는 점도 정리하고 넘어가자.

행정 심판	행정 소송
재결청	법원

- 2)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재결청이나 법원은 **'쟁송 취소'**를 통해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행정 심판에서는 위법한 처분과 부당한 처분 모두가, 행정 소송에서는 위법한 처분만이 취소될 수 있다.

▶ 처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행정 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 재결청이나 법원은 처분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를 '쟁송 취소'라고 하는데, 이 역시 어디까지나 '불복 기간' 내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한한다. 즉 불복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쟁송 취소'는 가능하지 않다.

※ 주목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이 취소시킬 수 있는 처분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문단1-1]]. 구분하여 정리해 두자.

행정 심판	행정 소송
위법한 처분, 부당한 처분	위법한 처분

문단 3 불가변력과 직권 취소

- 1) 불복 기간이 경과하여 쟁송 취소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분을 한 행정청인 처분청이나 그 감독청은 **'직권 취소'**를 통해 하자 있는 처분의 효력을 직권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직권 취소는 그 자체가 독립적인 처분이어서 해당 처분에 불가쟁력이 부여되었는지의 여부에 구속되지 않는다.

※ 맥락 짚기 앞서 살펴본 '쟁송 취소'와 '직권 취소'를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직권 취소'는 행정청이 내린 처분이 하자 있는 처분이라고 판단될 경우, '쟁송 취소'와 무관하게 행정청의 '직권'으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 주목 '쟁송 취소'의 경우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불복 기간' 내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해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면[문단2], '직권 취소'의 경우 불복 기간이 경과하여 '쟁송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 '불가쟁력'이 부여되었어도] 처분의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 2) 물론 특정한 처분의 경우에 한해 그 처분의 성질상 직권 취소를 할 수 없게 하는 존속력이 부여되어 있는데, 이를 **불가변력**이라 한다.

▶ 특정한 처분에 한해, '직권 취소'로도 취소되지 않는 처분이 있다. 그러한 처분에는 '불가변력'이 부여되어 있다.

※ 맥락 짚기 문단2에서 '존속력'과 관련하여 '불가쟁력'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기억하자. 따라서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을 구분하여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

문단 4 사법 절차에 준하는 처분

- 1) **사법 절차에 준하는 처분**은 불가변력이 부여된 대표적인 처분이다. 예를 들어, 행정 심판의 청구에 대한 재결청의 판단인 **재결**은 사법 절차에 준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불가변력이 부여된다. 공적 권위를 가진 행정청이 행하는 **확인 행위**도 불가변력이 부여된 처분이다. 국가 고시 합격자나 선거 당선인 등을 결정하는 것이 확인 행위에 속한다.

※ 맥락 짚기 불가변력이 부여된, 즉 처분의 성질상 직권 취소가 불가능한 처분을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재결'과 '확인 행위'는 모두 '불가변력'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하자 있는 처분일지라도 원칙적으로는 직권 취소가 되지 않는다.

- 2) 다만 불가변력이 부여된 처분도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거나 상대방에게 하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취소가 가능하다. 또한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은 불복 기간 내에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통해 불가변력이 부여된 처분의 효력을 다룰 수 있다.

▶ 불가변력이 부여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직권 취소가 가능하지 않다. 다만 예외적으로 직권 취소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 맥락 짚기 법학 지문에서는 원칙과 예외를 구분하여 파악하는 것이 항상 중요하다. 이 둘을 구분하여 정리해 보자.

<불가변력이 부여된 처분>	
• 원칙 : 직권 취소 불가능	
• 예외 : 직권 취소 가능	
-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 처분의 상대방에게 하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또한 불가변력이 부여된 처분이라도 처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은 불복 기간 내에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통해 그 효력을 다룰 수 있다. 즉 이 경우, '직권 취소'와 '쟁송 취소' 둘 다 가능하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보기> 분석

<보기> 문단

- 1) (가) 행정청의 **처분 A**가 하자 있는 처분이라고 판단한 상대방 **(갑)**은 변호사와 상담했는데, 변호사는 A가 지닌 하자의 성격상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갑'에게 전달했다.

▶ 변호사가 '처분 A'에 대해 '행정 심판'만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갑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아, 변호사는 '처분 A'를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문단2-2].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 둘 다 가능하지만,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 심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행정 심판	행정 소송
위법한 처분, 부당한 처분	위법한 처분

2) (나) 처분청의 **확인 행위 B**에 대해 **감독청**은 해당 처분이 하자 있는 처분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며, 처분의 상대방인 **‘을’** 역시 B의 효력을 다투고자 한다.

➡ 처분청의 ‘확인 행위 B’는 ‘사법 절차에 준하는 처분’으로 불가변력이 부여된 처분에 해당한다[문단4-1)]. 즉 원칙적으로는 직권 취소가 불가능하다[문단3-2)]. 그런데 만약 ‘확인 행위 B’에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거나 ‘처분의 상대방에게 하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감독청이 판단했다면 예외적으로 ‘직권 취소’가 가능하다[문단4-2)].

➡ 또한 처분의 상대방인 ‘을’도 불복 기간 내에 한해서는 행정 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확인 행위는 불가변력이 부여된 처분으로, 하자 있는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직권 취소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처분의 상대방에게 하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취소가 가능하다. 즉 감독청은 ‘처분청’이 아니라, 처분의 상대방인 ‘을’에게 하자의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따져 볼 것이다. 따라서 ⑥번 선택지는 적절하지 않다.



[14~17] 기술

핵 재처리 파이로 공정

지문 평가

‘전해 환원’이라는 파이로 공정의 원리와 해당 공정의 단계가 소개되는 전형적인 기술 지문이다. 파이로 공정은 어떻게 ‘핵 확산 저항성’을 충족시키는지를 염두에 두고 단계별로 일어나는 반응을 파악해 보자.

키워드

기술 - 원자력 공학 - 파이로 공정

사용 후 핵연료(SNF), 우라늄, 플루토늄, 초우라늄, 고독성 물질, 고방열성 물질, 핵 재처리, 핵 확산 저항성, 파이로 공정, 전해 환원, 산화, 환원, 전처리 단계, 다공성, 펠릿, 전해 환원 단계, 용융염, 전해 정련 단계, 전해 제련 단계, 처리 단계

문단 1 SNF와 핵 재처리

1) 원자력 발전은 ‘**사용 후 핵연료(SNF)**’를 남긴다. SNF에는 연소되지 못한 **우라늄**, 그리고 **플루토늄**을 비롯한 무거운 원소들인 **초우라늄**, 방사성 원소가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수십만 년에 이르는 **고독성 물질**과 반감기는 짧지만 대량의 열을 방출하는 **고방열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 원자력 발전으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고 나면 ‘사용 후 핵연료(SNF)’가 남는다. SNF에는 핵연료로 사용되는 우라늄 중에서 연소되지 않은 것들, 플루토늄을 비롯한 초우라늄, 고독성 물질, 그리고 고방열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사용 후 핵연료(SNF) = 우라늄 + 초우라늄(플루토늄...) + 고독성 물질 + 고방열성 물질

2) 이를 저장해 두려면 환경으로부터 격리된 넓은 처분장과 장기간의 안전 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SNF에서 핵연료로 재사용할 수 있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핵 재처리**를 하면, 전력을 더 생산하면서 처분장의 소요 면적도 줄일 수 있다.

➡ SNF는 방사선을 방출하는 방사능 물질들과 고열을 방출하는 물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 환경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보관해야 하고, 방사능과 열이 주변으로 새어 나가지 않는지 장기간 관찰하며 안전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 그런데 SNF에서 원자력 발전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추출하면, 나머지 물질들만 처리하면 된다. 따라서 전력 생산은 늘고 필요한 처분장 면적은 줄어드는 것이다.

3) 다만 기존의 핵 재처리 방법들은 대개 핵 확산 저항성을 충족하지 못했다. **핵 확산 저항성**은 핵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플루토늄의 단독 회수가 어려운 것을 말한다. 이를 충족하는 것으로 ‘파이로 공정’이 있다.

➡ ‘핵 재처리’는 전력 생산이나 SNF 처리에 있어 유용한 기술이지만, SNF에서 플루토늄을 단독으로 추출한다면 이를 핵무기로 사용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이 낮은 정도, 즉 ‘핵 확산 저항성’을 충족하는가가 핵 재처리 방법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 맥락 짚기 이를 충족하는 핵 재처리 방법인 ‘파이로 공정’으로 글의 초점을 좁히고 있다. 파이로 공정은 SNF에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어떻게 추출

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왜 플루토늄을 단독으로 회수하는 게 어려운지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글을 읽어 나가자.

문단 2 파이로 공정 과정 1

- 1) **파이로 공정**은 전기 화학적인 산화 환원 반응을 통해 특정 물질을 금속으로 환원시키는 **‘전해 환원’**을 기초로 한 방법이다. **산화**란 전자를 잃거나 산소와 결합되는 경우를, **환원**이란 전자를 얻거나 산소와 분리되는 경우를 지칭한다.

☞ **맥락 짚기** 기술 지문에서 이렇게 특정 방법에 대한 원리가 나올 때는, 기술이 목표한 바가 이 원리를 통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지문을 읽어 나가면서 파악해야 한다.

▶ 파이로 공정의 기본적인 원리는 ‘전해 환원’이다. 즉 SNF에 남아 있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이 전자나 산소와 결합하거나 분리되면서 추출된다는 것이다.

- 2) 파이로 공정의 첫 단계인 **‘전처리 단계’**에서는 SNF의 연료봉을 분말화하면서 산화시킨다. 이어 분말을 윤활제와 혼합한 후 구멍이 많은 특성인 **다공성**을 띠도록 하며 작은 덩어리인 **펠릿**으로 성형하는데, 이는 다음 단계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 파이로 공정의 첫 단계인 ‘전처리 단계’는 SNF를 산화시킨 다음 다공성 펠릿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이는 이어질 단계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한다고 하니, 다음 단계에서 구멍이 많은 성질과 크기가 작은 성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살펴보자.

전처리 단계 : SNF 연료봉 분말화 및 산화 ⇨ 윤활제와 혼합
⇨ 다공성 펠릿으로 성형

문단 3 파이로 공정 과정 2

- 1) 이어 **‘전해 환원 단계’**에서는 핵연료 산화물인 펠릿들을 담은 바스켓을 음극으로 삼고, 백금을 양극으로 삼은 후 두 전극을 650℃의 염화 리튬 용융염에 담근다. **‘용융염’**이란 녹아서 액체가 된 염류를 말한다.

▶ 음극인 바스켓에 담긴 핵연료 산화물은 SNF의 연료봉을 분말화하며 산화시킨 후 펠릿으로 만든 것이다[문단2-2]. 이는 양극인 백금과 함께 액체 상태의 염화 리튬에 담긴다.

- 2) 두 전극에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면 음극에서는 먼저 용융염에 녹아 있던 리튬 양이온에 전자가 결합하여 금속 리튬이 되는 반응이 나타난다.

☞ **맥락 짚기** 전처리 단계에서 만든 핵연료 산화물 펠릿에 전기를 주어서, 즉 전자를 제공해서 ‘전해 환원’이 일어나는 단계임을 알 수 있다. 파이로 공정이 ‘전해 환원’을 기초로 한 방법인 만큼 이 단계의 세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문단2-1].

▶ 먼저 음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다.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여 전자를 제공해 주면 액체 상태의 염화 리튬에 있는 리튬 양이온이 음극에서 ‘금속 리튬’이 된다 [→ 환원된다.]

음극 반응 ① : 리튬 양이온 + 전자 ⇨ 금속 리튬

- 3) 이어서 핵연료 산화물들이 환원을 돕는 환원제 역할을 하는 금속 리튬에 산소를 빼앗기면서 금속으로 환원되거나, 전기 에너지에 의해 산소 이온을 내놓으며 직접 금속으로 환원된다.

▶ 앞에서 만들어진 금속 리튬이 핵연료 산화물로부터 산소를 빼앗아 가면 핵연료 금속이 얻어진다. 즉 금속 리튬이 핵연료 산화물의 환원을 도운 것이다.

음극 반응 ②-1 : 핵연료 산화물(핵연료 + 산소) + 금속 리튬
⇨ (리튬 + 산소) + 핵연료 금속

▶ 리튬 양이온이 금속 리튬으로 먼저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핵연료 금속은 얻어진다. 전기 에너지에 의해 주어진 전자를 받으면 핵연료 산화물 속의 산소 이온과 핵연료가 분리되어 [→ 환원되며] 핵연료 금속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음극 반응 ②-2 : 핵연료 산화물(핵연료 + 산소) + 전자
⇨ 핵연료 금속 + 산소 이온

☞ **주목** 두 경우 모두 ‘전해 환원’을 통해 ‘핵연료 금속’, 즉 SNF에서 추출하고자 했던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금속을 얻는 것이다.

- 4) 산소를 얻은 금속 리튬은 산화 리튬이 되지만 이내 전기 에너지에 의해 다시 산소를 내놓으며 환원된다.

▶ 3)에서 핵연료 산화물은 금속 리튬에 산소를 빼앗긴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생성되는 것이 산화 리튬이다. 금속 리튬은 산화 리튬이 되었다가 이내 전기 에너지에 의해 산소 이온과 분리되어 [→ 환원되며] 금속 리튬으로 돌아간다.

음극 반응 ③ : 산화 리튬(리튬 + 산소) + 전자 ⇨ 금속 리튬 + 산소 이온

- 5) 양극에서는 음극에서 발생한 산소 이온들이 옮겨 와 전자를 잃음에 따라 산소 기체가 발생한다.

▶ 음극에서 발생하는 산소 이온은 핵연료 산화물로부터 직접 분리된 것과 산화 리튬으로부터 분리된 것들이다. 이들은 양극으로 옮겨와 전자를 잃으며 [→ 산화되며] 산소 기체가 된다.

☞ **주목** 전해 환원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정리해 보자. 결과적으로 음극에서는 물질이 환원되며, 양극에서는 물질이 산화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문단 4 파이로 공정 과정 3

- 1) 이렇게 얻어진 금속 물질로부터 우라늄의 대부분을 회수하는 **‘전해 정련 단계’**, 플루토늄을 비롯한 다른 원소들이 완전히 뒤엎겨 있는 초우라늄과 남은 우라늄을 회수하는 **‘전해 제련 단계’**에 이어 남아 있는 폐기물의 **‘처리 단계’**를 거치면 파이로 공정은 마무리된다.

▶ 파이로 공정은 전처리 단계와 전해 환원 단계 이후에도 여러 단계가 있다. 전해 환원 단계에서 얻었던 ‘핵연료 금속’은 다른 단계들을 거치며 핵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으로 회수되는 것이다.

파이로 공정 : 전처리 단계 ⇨ 전해 환원 단계 ⇨ 전해 정련 단계
⇨ 전해 제련 단계 ⇨ 처리 단계

☞ **주목** 그런데 전해 제련 단계에서 회수하는 초우라늄은 ‘플루토늄이 다른 원소와 뒤엎겨 있는 상태’이다. 즉 파이로 공정을 통해서는 플루토늄의 단독 회수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파이로 공정은 핵 확산 저항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문단1-3].

- 2) 그런데 파이로 공정은 재처리된 금속 핵연료를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원자료가 개발되어야만 유의미하다. 현재 안전성 문제 등으로 그 개발이 난항을 겪고 있으며, 파이로 공정 중의 방사선 유출 등 난제들을 안고 있기도 하다.

▶ 파이로 공정이 핵 확산 저항성을 충족하긴 하지만, 상용화되기에는 아직 여러 한계가 있다고 한다.

<보기> 문단

1) 파이로 공정을 통해 금속으로 환원되는 정도인 **금속 전환율**은 펠릿의 밀도(= 전체 원료에서 구멍을 제외한 나머지의 비율)와 크기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공정의 효율성을 보여 준다. 이는 핵연료 산화물 내부에서 발생한 산소 이온이 잘 빠져나옴에 따라 양극에서 산소 기체가 활발히 발생하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 맥락 짚기 전체리 단계에서 '다공성 펠릿'을 만들었던 것은 바로 다음 단계인 '전해 환원 단계'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문단2-2]. 이를 <보기> 내용과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 주목 펠릿의 밀도와 크기가 산소 이온이 빠져나오는 정도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금속'으로 환원되는 정도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전해 환원 단계의 음극 반응 ②가 핵연료 산화물에서 산소가 빠져나오는 반응들이었는데 [문단3-3], 이 반응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양극에서 산소 기체가 활발하게 만들어진다.

음극 반응 ②-1 : 핵연료 산화물(핵연료 + 산소) + 금속 리튬
⇒ (리튬 + 산소) + 핵연료 금속

음극 반응 ②-2 : 핵연료 산화물(핵연료 + 산소) + 전자
⇒ 핵연료 금속 + 산소 이온

2) 바스켓에 펠릿 A~C를 넣고 전해 환원 단계를 진행한 '실험'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펠릿	A	B	C
크기	10mm	3mm	3mm
밀도	90%	90%	40%
금속 전환율	46%	75%	97%

➡ 밀도란 구멍을 제외한 나머지의 비율이므로, 밀도가 높을수록 구멍이 적고 [→ 다공성이 낮고] 밀도가 낮을수록 구멍이 많은 [→ 다공성이 높음] 펠릿이다. 즉 A, B, C 중에 C가 구멍이 가장 많은 펠릿이라고 할 수 있다.

∴ 밀도가 같고 크기가 다른 A와 B 중에서 B의 금속 전환율이 더 높다. 또한 크기가 같고 밀도가 다른 B와 C 중에서 C의 금속 전환율이 더 높다. 즉 크기가 작을수록, 그리고 밀도가 낮을수록 [→ 구멍이 많을수록] 핵연료 산화물에서 산소가 쉽게 분리되어 금속으로 환원되는 정도가 높다. 금속 환원율이 높아야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전해 정련 단계와 전해 제련 단계도 효과적으로 일어나 우라늄의 회수 비율도 높아진다. 따라서 ㉞번 선지는 적절하다.

[18~22] 현대시

(나) 「꽃 피는 시절」

- 이성복 -

작품 평가

개화의 과정을 노래한 작품으로 이해할 수도, 생명의 탄생이나 사랑과 이별에 대한 작품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일단 핵심 시어인 '당신'을 '꽃' 또는 '꽃을 피우는 생명의 힘' 정도로 이해하면 대체로 자연스레 읽힌다.

제 1연 추운 땅속에 있는 '당신'

멀리 있어도 나는 당신을 압니다

귀먹고 눈먼 당신은 추운 땅속[→ 계절적 배경, 겨울]을 헤매다

누군가의 입가에서 잔잔한 웃음이 되려 하셨지요

➡ '당신'에 관한 정보다. '당신'은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으면서도, 누군가에게 미소를 짓게 만드는 존재가 되려 한다. 제목을 고려하여 '당신'을 꽃과 연관 지으면, 꽃이 피어나지 못하는 추운 겨울에도 '꽃을 피울 생명의 기운'은 어디엔가 존재하고 있으며, 꽃을 피우기 위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인식을 표현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제 2연 때가 되면 오는 '당신'

부르지 않아도 당신은 옵니다

생각지 않아도, 꿈꾸지 않아도 당신은 옵니다

➡ 봄이 오면 꽃이 피는 자연의 섭리를 떠올리면 된다.

당신이 올 때면 먼발치 마른 흙더미도 고개를 듭니다

➡ 봄을 맞아 새싹이 움트는 광경을 떠올려 보자. 설렘이나 기대감이 느껴진다.

제 3연 '나'를 벗어나려는 '당신'

당신은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 제2연까지 내게 아직 오지 않았던 '당신'이 제3연에서는 갑자기 '내 안'까지 들어와 있다. '당신'이 '내 안'에 있다는 것에 주목하자. 그래야 '당신'과 '나'의 관계가 해명된다.

당신은 나를 알지 못하고

➡ 인간의 출생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엄마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나를 벗고 싶어 몸부림하지만

➡ 그런데 이렇게 만난 '당신'은 '나를 벗고 싶어 몸부림'한다. '나'와 '당신'의 관계를 꽃이 피는 과정으로 본다면, '당신'이 '내 안'에 있고 '나를 벗고 싶어 몸부림'하는 것으로 보아, '나'는 꽃을 둘러싼, 꽃을 피워 내기 위해 꽃이 뚫고 나가야만 하는 어떤 것이다. 즉 '나'를 꽃망울이나 꽃나무의 가지, 대지 등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

➡ 꽃이 피어나기 위해서는 꽃을 둘러싼 외피를 벗어나야만 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자. 이렇게 보면, '당신'과 '나'의 만남은 그 자체로 이별을 내재하고 있는 셈이다.

제 4연 이별의 고통 1

내게서 당신이 떠나갈 때면

내 목은 갈라지고 실핏줄 터지고

내 눈, 내 귀, 거덜 난 몸뚱이 갈가리 찢어지고

▶ '당신'과 이별하는 일의 고통을 격정적인 어조로 토로하고 있다. 이 이별을 개화나 출산의 과정으로 본다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진다. 개화는 꽃이 자신을 둘러싼 외피를 찢고 나와야만 가능한 것이고, 출산은 산고의 고통을 겪어야만 이루어지니 말이다.

제 5연 이별의 고통 2

나는 울고 싶고, 웃고 싶고, 토하고 싶고[→ 고조되는 복잡한 감정]

벌칙벌칙 물 사발 들어켜고 싶고 길길이 날뛰며

절편보다 희고 고운 당신을 앞댈이, 뺄어 낼 테지만[→ 하얀 꽃잎이 한 잎 한 잎 꽃망울을 뚫고 터져 나오는 순간을 표현함]

▶ 꽃은 고통스러운 개화의 과정을 거쳐 피어남으로써 비로소 그 아름다운 자태를 세상에 보인다. 결국 '나'는 '당신'과 이별함으로써 비로소 '당신'의 아름다운 참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별의 순간이 매우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화자가 웃고 싶다고 한 것은 거기서 오는 기쁨 때문일 것이다.

▶ '나'는 '당신'과의 이별을 마치 경험해 본 일인 양 매우 구체적으로 떠올리고 있다. 시적 상황을 개화의 순간으로 보고, 자연의 순환적 질서를 염두에 둔다면, 해마다 봄이 돌아오고 꽃을 피우는 경험이 반복되는 상황을 떠올릴 수도 있겠다.

제 6연 이별을 앞둔 '나'의 심정

부서지고 무너지며 당신을 보낼 일[→ '당신'과의 이별] 아득합니다

굳은 살가죽에 불 땀길 일 막막합니다

불탄 살가죽 뚫고 다시 태어날 일 꿈 같습니다

▶ 이별은 화자를 허물어뜨리는 일일 뿐 아니라,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이기도 하다. 모든 사랑과 이별에는 이러한 측면이 있다. 이별의 고통은 매우 아프지만 그 이별을 딛고 난 뒤에는 더욱 성숙해지는 법이다. 그래서 '나'에게, '당신'과의 이별은 아득하고 막막하고 꿈 같다. '당신'도 '나'도, 지금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데까지 도달하는 일이므로, 도저히 엄두가 안 날 법도 하다.

▶ 이를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이를 낳기 전에는 몹시 두렵고, 또 막막할 것이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면, 이제 그 존재는 '어머니'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게 되고 아기와의 관계 속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게 된다.

제 7연 '당신'의 몸부림

지금 당신은 내 안에 있지만

나는 당신을 어떻게 보내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별을 막막해하는 '나']

조막만 한 손으로 뺏센 내 가슴 쥐어뜯으며 발 구르는 당신[→ '나'를 떠나려는 '당신']

▶ '나'는 자신의 안에서 아직은 '조막만 한 손'을 가진 '당신'이 '나'를 벗어나기 위해 애쓰는 것을 느끼고 있다. 이를 통해 '나'는 '당신'과의 이별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감하며, 극한의 고통을 견뎌야 하는 이별에 대한 막막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27~30] 고전시가

「성산별곡」

— 정철 —

— 수록 지문 평가

작가가 젊은 시절 담양에서 글공부를 할 때, 담양 성산에 서하당과 식영정을 짓고 지내던 김성원을 위해 지은 작품이다. 성산의 사계절 풍광과 김성원의 풍류를 예찬한 이 작품은 송순의 「면앙정가」로부터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작가는 당시 여러 학자들에게서 학문을 배우고 있었는데, 그 스승들 중 한 사람이 「면앙정가」를 지은 송순이다.

서사 서하당과 식영정의 종류와 경치

어떤 지나는 손이 성산(星山)에 머물면서

→ 어떤 지나가는 손님이 성산에 머물면서 [말하기를]

서하당 식영정 주인(主人)아 내 말 들소

→ 서하당과 식영정의 주인아, 내 말 들어 보소.

▶ '주인'에게 '손'이 말을 건네는 상황이다.

인생 세간(人生世間)에 좋은 일 많건마는

→ 인간 세상에 좋은 일이 많은데

어찌하여 강산을 갈수록 낮게 여겨

→ 어찌하여 강산을 갈수록 좋게 여겨

적막 산중에 들고 아니 나시는고

→ 적막한 산중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으시는고?

▶ '주인'에게 건네는 '손'의 물음이다. 세상에 즐길 만한 일이 많은데 왜 자연을 이렇게나 좋아해서 적막한 산중에 은거하느냐는 것이다.

송근(松根)을 다시 쓸고 죽상(竹床)에 자리 보아

→ 솔뿌리를 다시 쓸고 대나무 평상에 자리를 보아

저근덧 올라앉아 어떤고 다시 보니

→ 잠깐 동안 [죽상에] 올라앉아 [주위가] 어떤가 다시 보니

천변(天邊)에 뗏은 구름 서석대(瑞石臺, 무등산 마루의 산봉우리 중 하나)를 집을 삼아

→ 하늘가에 떠 있는 구름이 서석대를 집으로 삼아

나는 듯 드는 양이 주인과 어떠한고

→ 나가는 듯 드는 모습이 주인과 어떠한고.

▶ 자유롭게 한가하게 보이는 '구름'의 모습이 '주인'의 삶과 닮았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창계(滄溪) 흰 물결이 정자 앞에 돌렸으니

→ 푸른 시내 흰 물결이 정자 앞을 둘러 있으니

천손 운금(天孫雲錦, 직녀가 짠 아름다운 비단. 은하수를 뜻함)을 뉘라서 베어 내어

→ 은하수를 그 누가 베어 내어

잇는 듯 펼치는 듯 헌사토 헌사할사

→ 이어 놓은 듯 펼쳐 놓은 듯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 화제는 '정자 앞'의 '창계 흰 물결'이다. 화자는 '창계 흰 물결'을 '천손 운금'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산중에 책력(冊曆) 없어 사시(四時)를 모르더니

→ 산속에 달력이 없어 사계절을 모르더니[→ 문맥상 '모를 것 같더니' 정도의 의미]

눈 아래 펼친 경치 철마다 절로 나니

→ 눈앞에 펼쳐진 경치가 철마다 절로 생겨나니

➡ 자연의 풍경이 계절을 알게 해 준다는 것이다. 이 작품의 본사는 계절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데, 서사의 이 구절에서 그러한 전개 방식을 암시하는 셈이다.

듣거니 보거니 일마다 선간(仙間)이라
→ 듣고 보는 일이 모두 다 신선 세계와 같구나.

(중략)

결사 세속과 단절된 성산의 풍류와 성산 주인의 풍류에 대한 예찬

산중에 벗이 없어 서책을 쌓아 두고

➡ 산속이라 친구가 없으니 책을 읽으며 소일한다는 것이다.

만고(萬古) 인물을 거슬러 헤아리니

→ 만고의 인물들을 거슬러 가며 생각해 보니

➡ 그 책 속에 들어 있는 옛 인물들에 대해 생각해 본다.

성현도 많거니와 호걸도 하도 할사

→ 성현도 많지만 호걸도 많고 많다.

➡ 그랬더니 그 인물들 중에서는 성현도 많고 영웅호걸도 많다.

하늘 삼기실 제 곧 무심할까마는

→ 하늘이[사람을] 내실 때 그리 무심할까마는

➡ 물론 하늘은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서 그랬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어찌하여 시운(時運)이 일락배락(= 흥했다가 망했다가) 하였는고

→ 어찌 시운이 흥했다 망했다 하였는가.

➡ 그 많은 '성현'과 '호걸'들이 있었는데 왜 시대의 운명이 흥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망하기도 했었느냐는 의문이다.

모를 일도 많거니와 애달픔도 그지없다

➡ 세상은 알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애달파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 생각은, 그러니 세속을 떠나 사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어져, 다음에 이어지는 시구에서처럼 세속을 등진 '허유'를 떠올리게 된다.

기산(箕山)의 늙은 허유(許由, 세속을 등지고 기산에 은거한 인물로서,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제안을 듣자 못 들을 말을 들었다며 귀를 씻었다 함) 귀는 어찌 씻었던고

➡ '허유'는 세속의 일에 대해 듣고 귀를 씻었다. 즉 '허유'가 세속과 단절하기 위해서 귀를 씻은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박 소리 핑계하고(= 허유가 표주박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핑계로 바가지 하나조차 소유하지 않은 일을 말함) 지조가 가장 높다

➡ '허유'는 표주박 하나를 갖고 있는 것조차 시끄럽고 귀찮다면서 표주박을 깨뜨렸다고 한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삶, 아무 욕심이 없어서 세속의 모든 것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지향했다는 의미로, 허유의 지조를 예찬하고 있다.

인심이 낮 같아서 볼수록 새롭거늘

→ 인심이 얼굴 같아서 볼수록 새롭거늘

➡ 인심이 날이 갈수록 새롭다는 것은 이어지는 시구와 함께 보았을 때 세상의 인심이 점점 나빠진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세사(世事)는 구름이라 머흘기(= 사납게 일어나기)도 머흘시고

➡ 세상은 구름처럼 순간순간 변하면서 험난하기만 하다. 그래서 세속의 일에 관심을 끊고, 성산에서 풍류를 즐기며 살고자 하는 것이다.

옛그제 빛은 술이 얼마큼 익었나니

→ 옛그제 빛은 술이 얼마나 익었느냐?

잡거니 밀거니 실컷 기울이니

→ [술잔을] 잡거니 권하거니 실컷 기울이니

마음에 맺힌 시름 적게나마 풀리는구나

→ 마음에 맺힌 시름이 조금이나마 덜어지는구나.

➡ 앞서 말했던 세상에 대한 근심을 술로 달래려 하는 것이다.

거문고에 줄을 얹어 풍입송(風入松, 악곡 이름) 타자꾸나

손인지 주인인지 다 잊어버렸어라

→ 손님인지 주인인지 모두 잊어버렸도다.

➡ 세상에 대한 근심을 잊고, '손'과 '주인'의 구분도 없이 어울려 풍류를 즐기고 있다.

장공(長空)에 떴는 학(鶴)이 이 골의 진선(眞仙)이라

→ 높고 먼 공중에 떠 있는 학이 이 골의 진선이라.

➡ '주인'이 '손'에게 하는 말이다. 저기 공중에 날고 있는 학이 이곳에 사는 진짜 신선이라는 것이다.

요대 월하(瑤臺月下, 신선이 사는 달 아래)에 행여 아니 만나신가

→ 요대 달 아래서 혹시나 만나지 아니하였는가?

➡ 그러면서 밤에 이곳에서 혹시 그 학을 만난 적 있지 않은가 하고 묻고 있다. '요대'는 신선이 사는 곳인데 곧 이곳 '성산' 땅이 요대임을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손이 주인더러 이르되 그대 긴가 하노라

→ 손이 주인에게 이르기를, 그대가 곧 그것[→ '진선']인가 하노라.

➡ '손'이 '주인'에게 대답하는 말이다. 자신의 생각에는 '주인'이 바로 진짜 신선이라는 것이다. 이 대답은 '주인'의 삶을 예찬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이 감